

소송전 비화된 혁신도시 부영CC 용도변경

자연녹지인 골프장 잔여부지 아파트 용지 변경 '부영 특혜' 시민단체, 전남도·나주시·부영 3자 협의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컨텍)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변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인허가 당국과 시민단체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부영주택이 맺은 3자 협의서를 당국이 공개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자연녹지(골프장 잔여지) 35만㎡를 50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부영 특혜'로 규정하면서, 3자가 맺은 협의서 공개를 촉구해왔다.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는 1일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의 3자

협의서 공개를 거부하는 전남도, 나주시를 상대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표 원고로 참여해 지난 31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전남도와 나주시에 지난 1월, 3자 협의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두 기관은 모두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를 요구하는 3자 협의서에 대해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2019년 12-1월 대학 부지 선정 발표 이전, 김영록 전남지사-강인규 나주시장-이중근 부영주택 회장이 맺은 협의서"라며 "문서가 없으면 부존재 통보를 할 것인데, 두 기관 모두 공개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은 각 정보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통상 기부에 관해 협의서를 작성할 경우, 나중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부행위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러한 순수한 목적의 기부 사실관계를 지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당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전남도와 나주시가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협의서에 부영골프장 부지 일부 기부에 대한 대가로 회사의 경영상, 영업상 이익을 보장하는 별도의 합의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영주택이 기부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35만㎡를 자연녹지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파격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당국에 요청했

다"며 "이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하여 주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더욱이 이러한 부영주택의 당당한 요구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에서 의심이 확산에 이르렀다"며 "부영주택의 기부 외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요구는 기부를 방자한 과도한 특혜이자 지극히 불공정한 거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찰청과 참여자치21,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2020년12월에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그동안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반대를 위해 성명발표, 정보공개 청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미세먼지 저감 영산강유역청 등과 협약

전남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암군, 한국환경공단과 '지역 맞춤형 대기질 개선 업무 협약'을 가졌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정부처 노력의 결과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16년 26㎍/㎥에서 2020년 19㎍/㎥로 감소한 바 있다. 전남 역시 2016년 24㎍/㎥에서 2020년 15㎍/㎥로 개선됐다.

전남도는 미세먼지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감하기 위해 대기 모니터링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에 나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개 유관기관과 최근 조선 경기 개선과 환경규제 강화 속 선박 도장시설이 집중된 대불산단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측정망을 활용한 모니터링 인프라 기반 확충과 지역 특성 맞춤형 지원 등 대기질 개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암군, 한국환경공단은 대불산단 사업장 맞춤형 환경 컨설팅,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기술 지원, 유해대기 측정자료 모니터링과 정보제공, 유해 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합동 점검, 비산배출 저감 사업 공동 발굴·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신규 협력사항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정례 협의회를 분기마다 갖고 대불산단 대기질 개선 효과 모니터링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참조기 양식 1번지 전남도 고급 종자 130만마리 분양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고급 참조기 생산이 가능한 종자 130여만 마리를 생산, 9개 양식 어가에 분양한다. 과학원은 안정적 급비 원료 확보를 위해 영광군과 함께 참조기 종자생산 어가에 수정란 8000cc를 무상으로 나눠준 바 있다. 참조기는 맛과 풍미가 뛰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적 사랑을 받는 생선으로 kg당 2만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는 고가 어종이다.

최근 어장환경이 급변하고 남획이 심해지면서 생산량 기폭이 심한데다 몸체 소형화 등의 문제가 있어 참조기 양식 활성화가 절실하다.

실제로 참조기 생산량은 2011년 5만000t이었던 것이 2014년 2만8000t, 2017년 1만9000t, 2020년 4만1000t으로 줄고 있다. 자연산 참조기 크기별 생산량은 100g 이상 2%, 60-90g 11%, 50g 이하 77%다.

이에 따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참조기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지난 2005년 기초연구를 시작해 생리·생태를 밝히고, 2019년부터 참조기를 10대 전략품종으로 선정해 종자생산 양식기술 등 다양한 시험·연구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빠르고 질 좋은 수정란 분양을 통해 종자생산 시범 어가의 생산성을 극대화해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앞으로 6-7개월의 짧은 양식 기간으로 100g 이상의 고급참조기 생산이 예상돼 어업인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 참조기 양식어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양식법을 확립할 계획이다.

신운용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양식품종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참조기 양식 산업화의 필수 조건인 대량 종자생산과 양식 방법이 정립돼 다행"이라며 "많은 양식어가에서 고소득을 올릴 주요 품종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공직자 청렴교육 광주 남구는 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이정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박희을 남구의회장 등 간부 및 신규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나주 SRF발전소 가동문제, 대화로 풀어야”

전남도의회 결의안 채택 나주시민의 반대가 극심하다"며 "아무리 적자가 많고 주주의 압박이 있더라도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없이 발전소를 가동한 것은 잘못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던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실패한 이유는 서로가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며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만 일삼았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는 발전소 가동과 손실보전 방안을 둘러싼 소송과 자지

단체, 공공기관,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과 불신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발전소 비용 문제, 나주시민들의 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모든 사안을 터놓고 이야기 해야 한다"며 "정부는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업체를 만들고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도, 광주시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치매 코호트 공모 선정 디지털 치매의료산업 기반구축

광주시가 치매 예측에서 치료 기술 개발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의료 산업 기반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치매 코호트(연구대상 집단) 데이터 적용 실증 기반 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조기 진단, 예방,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은 물론 제품 실증, 기술 사업화까지 지원하려는 것이다. 2025년까지 국비 100억원, 시비 40억원, 민자 60억원 등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에 연면적 3천 300㎡,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치매 기술 지원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주관하며 조선대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 서울성모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원광대병원 등이 협력한다. 시는 그동안 조선대 코호트연구단과 아시아 최대 규모인 1만6000여건의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 데이터와 참여 의료기관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 "인구 고령화로 늘어나는 치매 환자도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2050년에는 4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광주에 치매 의료산업을 집적화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시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금자동이체, 신탁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탁계좌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탁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곡로 315번길1)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신로1번길20-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9)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